

# ‘협치’ 하자던 20대 국회 문열자 마자 ‘대치’

### 국회법 거부권, 세월호·가습기 등 공조 놓고 여야 충돌 국회의장직 줄다리기...원구성 협상 실무진 접촉도 끊겨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제 20대 국회가 막상 임기를 시작하자 이전과 다르지 않은 구태를 재연하며 실망을 안기고 있다.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와 20년만의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초반전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전임 국회 못지 않은 정쟁의 구도를 형성했다.

임기 개시 전부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하다니, 원 구성 협상에서는 여야 3당 모두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 3당이 20대 국회에서 구현하겠다는 ‘협치’의 정신은 사라져가는 대신, ‘대치’와 ‘밥그릇 쟁기’라는 해묵은 관행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했지만, 20대 총선과 공천 과정을 보면 구성원들이 나아졌다고 자신할 수 없다”면서 “20대 임기를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벌써 싸수가 노랗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 3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상대가 받기 어려운 ‘카드’를 서로 꺼내놓고 상대의 수를 읽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일단 ‘호기’를 높게 불러놓고 서로를 압박하며 ‘장기전’에 돌입하려는 전형적인 전략이다. 이 때문에 국회 지형이 더욱 복잡해진 이번 20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역대 가장 늦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20대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새 정치’와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문제, 아권의 세월호 특별법 공조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며 ‘실전’을 주고받는 상황 역시 국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들이다.

원 구성이 어려워지니 20대 국회는 임기만 시작해놓고 실제 개원을 하지 못하는 ‘무노동 상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가량(임기개시일 기준) 걸렸던 원 구성은 이번에는 두 달을 넘겨 8월여야 완료될 것이라 어두운 전망까지 나온다. ‘협치’ 분위기가 흔들리면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여야 협의체도 삐걱거리기 가능성이 있다.

이날은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민주가 의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1석 차이로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여

당 몫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장 선출과 맞물린 18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에서도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 때문에 여야 3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해 이틀간 진행된 여야 3당 실무진의 접촉마저 이날 끊어졌다. 이와 함께 전날 발표된 가습기 살균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야 3당의 청문회 실시 방안도 지속적인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불어민주당 김중민 비상대책위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우상호 원내대표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다불어민주당 김중민 비상대책위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우상호 원내대표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 이후 평균 51일가량(임기개시일 기준) 걸렸던 원 구성은 이번에는 두 달을 넘겨 8월여야 완료될 것이라 어두운 전망까지 나온다. ‘협치’ 분위기가 흔들리면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여야 협의체도 삐걱거리기 가능성이 있다.

이날은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민주가 의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1석 차이로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여

당 몫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장 선출과 맞물린 18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에서도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 때문에 여야 3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해 이틀간 진행된 여야 3당 실무진의 접촉마저 이날 끊어졌다. 이와 함께 전날 발표된 가습기 살균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야 3당의 청문회 실시 방안도 지속적인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페넬로페의 ‘10년 망부가’ 애뜻



(156) '올리시스의 귀환'

지난 주말,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상연한 윌리엄 켄트리지의 오페라 ‘올리시스의 귀환’을 관람했다. 서울의 몇몇 지인들이 이 오페라를 위해 KTIX를 타고 광주에 내려온다고 해 한달음에 달려간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 공연 관람 차 버스 대절한 서울 관객들도 눈에 띄어 마냥 반가웠다.

전형적인 클래식 오페라라고는 거리가 먼 무대장치와 가수들의 의상, 목탄화 애니메이션 영상, 주인공으로 분한 목각인형을 조종하며 노래하는 3인 1조의 독특한 구성에 우선 마음 단단히 먹었다. ‘실용적이고도 전위적일 것이고, 어쩌면 난해하거나 지루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 속 우려는 잠시, 올리시스를 기다리는 페넬로페의 ‘망부가’에 빠져들면서 어느덧 10년 동안의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10년의 방랑과 모험으로 해엔 끝에 올리시스가 그토록 귀환하고 싶어 했던 이 타카에 함께 다다른 듯 했다.

이번 오페라 무대처럼 이른바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이라 할 트로이 전쟁을 엮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 문학에서 줄기차게 재생산되고 미술에서도 끊임없이 화가들의 영감을 자극해왔다.



위터 하우스 작 ‘결혼해 주세요’

존 윌리엄 위터하우스(1849~1917)의 ‘결혼해 주세요’도 ‘올리시스의 귀환’을 기다리는 페넬로페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한 작품이다. 구혼자들의 선택을 미루는 빌미로 시아버지의 수의 짜기를 하는 페넬로페의 창문을 등진 모습과 페넬로페의 마음을 얻으려 꽃과 보석과 예물을 들고 애원하는 구혼자들의 위협적인 모습이 대조적이다.

로마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위터하우스는 빅토리아 시대 대표적인 시인인 테니슨의 시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작품의 소재를 구했고, 고전주의적 주제를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표현하면서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서사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위터하우스는 영국 빅토리아왕조(1837~1901)에 유행해서 ‘빅토리안 페인팅’이라고 불리는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로도 꼽힌다. 신화나 문학의 연애담을 순정만화처럼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특징을 지닌 ‘빅토리안 페인팅’은 그만큼 대중성이 강해 당시에 큰 인기를 모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새누리 “여당 의장이 관례” 더민주 “여당 아닌 1당이...” 날선 공방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의장선출 자율투표 바람직”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새누리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의 원내 1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집권 여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1988년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됐지만, 여당인 민주정의당 소속 김재

순 의원이 13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또 1996년 15대 총선에서 ‘DJP 연합’이 성사되자 자민련 소속 박준규 의원이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 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도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이 패배해 원내 2당이 됐지만 민주당 출신의 이만섭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예외는 지난 16대 국회 후반기(2002~2004년) 박관용 국회의장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 강한 의지를 나

타내자 원내 1당으로 의장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더민주의 비상이 걸렸다. 더민주 측은 “국회의장직은 여당이 아닌 1당이 가져오는 것이 관례”라며 국회의장직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어찌부터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겠다고 입장을 선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고 여당의 입장 선회를 비판했다.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의장직 확보를 고집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자유투표를 나설 수밖에 없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유투표를

실시한다면 야당 국회의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공동 보증을 취하며 새누리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당 일부 지도부도 차라리 자율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에 (여권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협치의 가능성이 없다”며 “의장은 어디에서 갖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반기문 견제?...문재인·박원순 충청 방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갑자기 충청 방문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의 행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직후여서 반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민주 문 전 대표는 1일 충북을 찾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과 천주교 청주교구를 방문해 장봉훈 주교와 30분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하지만, 정치 관련 발언을 최대한 아끼면서, 최근 계속되는 ‘조용한 행보’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장 주교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뒤 기다리

던 취재진에게 “(이번 방문에) 특별한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반 총장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내 일정대로만 다니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박 시장도 오는 3~4일 충북을 방문. 충북교육청 강연 및 충북 지역 낙선자들과의 오찬, 충북도당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월례 조희태 때마다 저명인사를 초청해 온 충북 교육청의 요청을 박 시장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진료내용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